

Daily Auto Check

2021.1.15(Fri)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RA 이다빈

02.6454-4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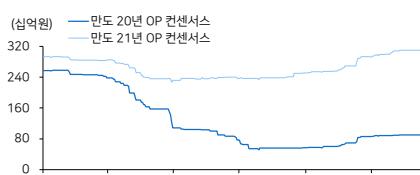
dabin.lee@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전기차 생산 준비 박차..울산공장 일부라인 교체 (이데일리)

현대차가 제네시스의 전기차 생산을 위해 기존 내연기기관 생산라인을 전기차 생산라인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현대차는 최근 '완성차 선다운 공사계획'을 통해 '울산 2공장 전기차 JW/JK EV 생산준비 공사' 일정을 공지. <https://bit.ly/3oLcfAM>

비대면으로 SUV 흥행은?..인도 절주하는 현대차 (디지털타임스)

현대자동차가 인도 지역에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3D 쇼룸을 운영하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 영역 확대에 나선다. 현대차는 이번 비대면 마케팅 강화로 신차 효과를 극대화 해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현지 코로나19 위기를 정면 돌파한다는 전략. <https://bit.ly/3ssDBOf>

작년 자동차 내수시장 역대 최대 판매량 기록 (조선일보)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자동차 내수 시장에서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 등 내수 진작책과 다양 한 신차 출시 효과가 겹쳤기 때문이다. 미국·중국·일본·독일·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내수 판매량이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https://www.chosun.com/economy/auto/2021/01/14/SVRMCMKG2ZDTPP3KM4HEUBCGL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美 올해 자동차 판매 최대 10% 증가 전망 (글로벌비즈)

미국의 올해 자동차 시장이 단단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됨,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바탕으로 경제가 편디믹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회복세로 돌아서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대규모 경기부양에 나서 경기회복세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낙관에 따른 것. <https://bit.ly/38OvJPz>

기아차 니로 EV, 英서 '소형 전기차' 상 수상 (파이낸셜뉴스)

기아차는 영국의 저명한 자동차 상 '2021 앤 카 어워즈'에서 e-니로(니로 EV)가 '소형 전기차'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앤 카 어워즈는 유럽 내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영국 대표 자동차 전문 매체인 앤 카가 주최하는 자동차 시상식. <https://bit.ly/38InjZD>

1조원 규모 범부처 자율주행사업 착수...2027년 레벨4 상용화" (연합뉴스)

2027년 레벨4 수준의 원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총 1조원 규모의 범부처 자율주행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4개 부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2021년 신규과제를 공고. <https://bit.ly/3idMwyw>

테슬라, 중국 이어 인도 공장 설립 임박 (뉴스동아)

테슬라의 인도 공장 설립이 임박. 이르면 올해 말 테슬라의 전기차가 인도에 출시될 전망. 테슬라는 지난 8월 인도 남부 벵갈루루에 시무소 등록을 마친 테슬라 모터스 인디아와 에너지 프라이빗이 벵갈루루에 등록된 시무소와 협력하는 방식을 취함. <https://bit.ly/2LViiZe>

중국, 2021년 새해부터 시행하는 정책 (KOTRA)

2020년 폐지일을 앞두고 있던 신에너지차 취득세 감면 정책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세무총국에서 발표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에너지차 차종목록>에 충족만이 감면 대상임을 유의해야 함.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86757>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